

## 국어 표기법 연구의 몇 가지 과제

강 창 석\*

### 1.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은 文字生活에 여러 가지 큰 변화를 가져왔다. 字板이 필기도구 역할을 하고 종이 대신 모니터가 작업 공간이 되고 있다. 글을 쓰고 읽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매우 빨라졌다. 이처럼 문자생활의 환경이 달라지다보니 글의 내용에도 예전과는 다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요즘의 전자문서(컴퓨터 화면을 통해 읽는 글)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 중에서 국어학도인 필자의 관심을 특히 끄는 것은 ‘表記규범의 逸脫’ 현상이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접하게 되는 글에는 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가 아주 많다. 규범을 중시하는 쪽에서 보자면 그 정도가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현상을 비판과 교정의 대상으로 삼기 이전에 먼저 연구 자료로서 주목한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법이나 맞춤법에 어긋난 예들이 전자문서에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

\*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까닭을 짐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기존의 글(출판 문서)은 대개 소수의 사람이 쓰고, 전문가의 교정 과정을 거쳐 독자에게 제공되었다. 그러므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예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전자문서는 필자가 훨씬 다양하다. 게다가 그 특성상 철저한 교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글을 쓰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차이가 그대로 노출되거나 유지되는 것이다.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표준어나 誤記가 미처 교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노출되는 전자문서들은, 교정이 잘 된 출판문서보다 오히려 가치가 더 높은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당대의 언어 實相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제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면 국어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나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현대의 생생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자료의 정밀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문면 이외의 정보를 거의 얻기 어려운 中世나 近代의 문헌자료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國語史의 서술에서 15, 16세기는 (後期)中世國語, 17세기부터는 近代國語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sup> 이렇게 시대를 가르는 것은 17세기를 前後하여 국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문헌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내용인즉 15세기 문헌과 16세기 문헌 사이의 차이보다는 16세기와 17세기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판단에는 한 가지 看過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資料의 性格 차이 즉 각 시대별로 문헌자료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다.

문헌에 나타난 언어는 같은 시대의 것이라 하더라도 자료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것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상황 판단을 분명하게 할

1) 국어사의 시대 구분에는 몇 가지 견해가 나와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기문(1972)에서 제시된 구분 방법이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수 있는 현대의 자료들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예컨대, 敎科書와 전자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국어는 같은 시대의 것이지만 적지않은 차이가 나타난다. 후자에서는 흔히 발견되는 ‘앉어, 니가, 머야, 돼고’ 등이 전자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自明하다. 전자는 처음부터 規範(표준어, 맞춤법)에 따랐거나 나중이라도 ‘앉아, 네가, 뭐야, 되고’로 교정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이 잘된 교과서류만을 자료로 삼을 때는 현대국어의 변화를 거의 느낄 수 없지만,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엄청난 변화를 實感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문헌자료 곧 文面에 나온 내용만을 주 근거로 하는 국어사 연구 특히 시대구분 문제에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

15, 16세기의 자료는 대개 中央에서 少數의 필자에 의해 쓰이고 刊行된 것이지만, 17세기 이후의 자료는 필자가 다양해지고 筆寫된 것도 많다. 이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에서 지적한 교과서와 전자문서의 차이를 떠올리게 한다. 즉 15, 16세기의 문헌 자료는 표기 규범이나 교정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17세기 이후의 자료는 그것이 훨씬 약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16세기에 이미 진행되고 있던 변화들이 당대의 문헌에는 반영되지 않다가, 상황이 달라진 17세기에 와서 한꺼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 것이다.

## 2.

전자문서에서 자주 눈에 띄는 몇 가지의 맞춤법 오류들은 국어 표기법 분야의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失手 發話의 예들이 음운론이나 문법론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듯이, 맞춤법 오류 역시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무의미한 현상은 결코 아니다. 표기 오류에도 일정한 유형이 있고 그 나름대로 원인도 있는 것이다. 요즘의 글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표기 오류(誤記)의 예를 몇 가지 보기로 한다.

- (1) ① 앓어(앗아), 니가(내가), - 언어변화, 비표준어
- ② ㄱ. 한대요(한대요), 대리고(데리고) - 발음 변별력 상실
- ㄴ. 계시판(계시판), 희망(희망),
- ㄷ. 드러나(들어나), 반드시(반듯이)
- ③ 되요(돼요), 돼고(되고) - 음가 혼동(?)
- ④ 넓적하다(널찍하다), 올바르게(올바르게), 늦장(늑장) - 문법 의식
- ⑤ 시퍼라(싫어라), 그래여(그래요) - 의도적

(1)의 예들은 모두 현행 규범에 어긋난 것이지만, 오류의 성격이나 원인은 조금씩 다르다. 먼저 ①의 예는 形態의 변화에 따른 표기 변화로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誤記는 아니다. 즉 표기 자체는 정확한 것이지만 표기 대상이 비표준어이기 때문에 흔히 오기로 분류되는 것이다.<sup>2)</sup>

②는 발음과 표기상의 불일치에서 연유하는 오기이다. 현대 맞춤법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오기가 바로 이런 경우인데, 몇 가지로 유형을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ㄱ은 일부 화자들의 경우에만 음가가 中和되어 표기에도 혼란이 나타나는 경우이다.<sup>3)</sup> 그리고 ㄴ은 발음은 이미 모두 변했는데, 표기는 예전 것을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ㄱ과 ㄴ이 특정 문자의 음가와 관련된 것이라면, ㄷ은 표기 원리 때문에 생겨나는 同音異記의 예이다. 즉 현대 맞춤법은 글자(음절) 구성을 소리대로 하지 않고 어법에 따라 하는 원리(분철)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많은 例外(연철)도 존재하기 때문에, ㄷ과 같은 표기상의 혼동이 나타나기 쉽다.

③은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른 예로 보인다. 즉 '되다'의 활용형에서 '되'와 '돼'를 서로 바꾸어쓰는 오류는, 대부분의 화자들에게 음가가 아직은

2) 현행 맞춤법 규정에 표준어를 적는다는 규정이 들어있기 때문에(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춤법의 문제와 표준어의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줄고(1995), 연규동(1998) 등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3) 경상도 방언 화자들이 '으'와 '어' 표기를 특히 잘 혼동하는 경우도 동일한 예가 될 것이다.

변별된다는 점에서, 음가 혼동의 결과로는 보기 어렵다. 다시 말해, 나타나지 않을 법한데 실제로는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아직은 오류의 원인을 확실하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추정하건대, 어찌다가 일부가 ‘되’와 ‘돼’의 음가를 혼동하여 바뀌쓰게 되었는데, 그 잘못이 시정되지 않고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즉 잘못된 경우가 오히려 규범처럼 인식되어, 맞는 것을 오히려 틀리게 오고정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sup>4)</sup>

④의 예도 발음상으로는 혼동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럼에도 규범에 어긋난 표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문법의식이 표기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⑤의 예는 표기자의 意圖에 의한 표기 오류이다. 즉 ①-④가 판단 착오에 의한 일종의 失手라면, ⑤는 표기자가 일부러 규범과는 다른 표기를 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오기가 아니고, 표기자가 현행 맞춤법과는 다른 별도의 표기 원리를 적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sup>5)</sup>

이와 같이 표기 규범에 어긋난 자료들을 살펴보게 보면 (2)와 같은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의 자세한 논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국어 표기법을 논의할 경우에는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 (2) ① 완벽한 교정을 거치지 않은 표기에는 다소간의 誤記가 있을 수 있다.
- ② 오기는 대부분 비의도적인 것이지만 의도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③ 대부분의 오기는 음가 판단(변별 여부)과 관련이 있다.

4) ‘되교’를 ‘돼교’로, ‘돼도’를 ‘되도’로 잘못쓴 예는 국민 다수가 보는 방송의 자막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경우들이 혼동을 더욱 증폭,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5)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의 경우에서 규범과는 다른 의도적인 표기 곧 별도의 원리의 의한 표기 예를 많이 접할 수 있다.

④ 문법의식이 음가 판단이나 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와 같은 내용은 말그대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이라도 언제나 잘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다. 상식적인 내용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경우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경우이다. 예컨대, 15세기 표기법에 관한 그동안의 슬한 논의에서도 위와 같은 상식적인 사항이 무시되거나 간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굳이 (2)와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다.

### 3.

15세기의 표기 자료들은 국어학자들의 집중 조명을 받아 왔다. 15세기 표기법의 올바른 이해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訓民正音이나 국어사 연구를 위해서도 선결 필수과제가 되기 때문이다. 15세기 표기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아주 많지만,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이다

- (3) ① 15세기 표기법의 원리는 소리대로 적는 것이다
- ② 소리대로 표기되지 않은 예도 일부 있다

훈민정음의 창제에 이어 확립된 표기 원리가 ‘소리대로 적는’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異見이나 논란이 거의 없다. (3)과 같은 내용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될 것이다. 첫째는 소리대로 적은 것을 표기법(표기 원리)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소리대로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일부 예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먼저 소리대로 적는 표기의 原理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사실, 문

자가 表意문자가 아니고 表音문자라면, 소리대로 적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다. 다시 말해, 표음문자의 표기는 모두 소리대로 적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처럼 ‘소리대로’가 모든 표기에 기본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특정한 표기원리의 하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15세기의 표기 방식을 ‘음소적원리’ 등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여러 가지 표기 원리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인식, 기술해온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표음문자를 이용한 표기도, 현대 맞춤법이나 영어철자법(spelling) 처럼, 소리와는 조금 다르게 적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도 기본 원리는 역시 ‘소리대로’이다. 표음문자인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그 기본 원리 위에, 부차적인 다른 원리나 사정이 덧붙었을 뿐이다.<sup>6)</sup> 비유하자면, 15세기 표기법이 맨몸 상태라면 현대맞춤법은 그 위에 옷을 하나 걸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옷을 입은 경우와 맨몸인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므로 두 경우는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옷의 有無에서 비롯되지 것이지 옷과 맨몸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즉 맨몸이 옷과 직접 대립되는 것처럼 비교, 기술될 수는 없는 것이다.

현대의 한글 맞춤법 규정에는 표기 원리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으로 기술하고 있다. 앞에서 비유한 옷에 해당하는 내용을 ‘語法’으로 표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미 여러 논의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표현은 의미가 애매하고 부적절한 기술이다. 다시 부연, 설명되지 않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리대로만 적는 것은 마치 어법에 맞지 않는 것처럼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대 맞춤법의 원리는 이론의 개발자인 주시경의 理論에 따라 ‘本音 표기’ 등으로 부르는 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분명한 기술이 될 것이다. 실제로 현대맞춤법은 ‘본음 표기’ 그리고 그 이전의 전통적인 표기는 ‘임시음 표기’로 구분해놓고 보면, 양자의 차이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먼저 두 가지 표기는 표기 원리(어떻게)가 다른 것이 아니라

6) 이에 대한 논의는 줄고(1995) 참조.

표기대상(무엇을)이 서로 다를 뿐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발음과 크게 다른 영어 단어의 철자(예컨대, knife 등)도 특정한 표기 원리를 따르 지닌 것은 아니다. 소리대로 적은 것인데 소리가 점차 변하면서 철자와 달라지게 된 것뿐이다. 이처럼 표음문자의 표기대상인 소리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소리대로 적지만 서로 다른 표기가 나올 수 있는 까닭이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適切한 理論의 必要性으로 요약, 정리될 수 있다. 즉 15세기 자료이든 현대의 표기 자료이든 적절한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체계적인 이해와 기술로 귀결될 수 있지만, 理論이 없거나 부적절한 것일 때는 애매한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어법에 맞게’ 등이 애매하다고 하는 것도 체계적인 이론에 근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현대 맞춤법은 표기 방법은 이론적이면서 규정의 기술은 이론적이지 않다. 본음 이론에 따라 표기하면서도, 記述에서는 ‘本音’이라는 用語(이론)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15세기 표기법의 경우는 解例 등에서 약간의 체계적인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논의와 기술에서는 그 이상의 체계적인 理論이 별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의 술한 연구와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역시 명확하지 못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

혹자는 국어 표기법의 경우 아직 적절한 자체 이론이 개발되지 못해, 無이론이나 구미이론에의 의존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냐고 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한글이나 한글표기법의 분석과 기술에 필요한 이론은 이미 개발되어 있다. 왜냐하면, 한글이라는 문자의 창제와 그 표기법의 수립 자체가 이론의 개발을 통해 즉 체계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어서 반복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문자와 표기법 자체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 분석이나 기술에 이론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문제는 결국 문자체제와 표기법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론을 우리가 잘 모르거나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점이다.



4.

이제 15세기의 문헌에 보이는 일부 예외적인 표기 즉 소리대로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예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주목을 받고 논란의 대상이 된 예는 제법 많지만, 먼저 (4)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 (4) ㄱ. 「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의 종성 표기  
( 곱, 깊고, 좃거늘, 높고 등)
- ㄴ. 「월인천강지곡」에서의 부분적인 분철 표기  
(눈에, 손으로, 안아, 몸이 등)
- ㄷ. 비음동화나 유음동화 현상이 반영되지 않은 표기  
(믿는, 글는 등)

(4)와 같은 예는 그동안 주로 두 가지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첫째는 표기와 음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는 현대맞춤법과 거의 유사한 표기라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이와 같은 예와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론이 ‘15세기에 이미 현대 맞춤법과 같은 원리가 인식되고 일부 문헌에 채택되기도 했었다’는 것이며, 그것은 현재 학계에 널리 퍼져 있다.

위와 같은 몇 가지 판단과 결론은 얼핏 당연해보이지만, 한 가지씩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4)의 예들이 정말 音價와 다른 표기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자. 이것은 얼핏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특정 단어의 음가를 구체적으로 논하기에 앞서 음가의 개념부터 제대로 확인하고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음가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음 이론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理論이란 곧 음을 분류하고 인식하는 체계를 말한다. 예컨대, 우리는 ‘버스(bus)’라는 단어를 두 개의 음절과 네 개의 낱소리(初, 中聲)로 인식하지만, 영어 화자들은 3개의 음소(子, 母音)로 인식한다. 이러한 차이

는 음 인식 체계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변별하는 ‘성/선/섬’을 일본인들은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음가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음 인식 체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15세기의 표기 자료에 대한 그동안의 음가 판단이나 논란은 대체로 현대의 음 이론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구미의 음운이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예컨대, 竝書의 음가가 된소리냐 子音群이나 하는 논란은 始終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15세기 당시의 인식 내용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음에 관한 인식 체계가 달랐던 15세기에는 된소리와 자음군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대와는 다른 내용의 음가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sup>7)</sup> 따라서 15세기의 표기 자료에 대한 음가를 논할 때는 먼저 그것이 현대적인 관점의 음가인지 아니면 당시에 인식한 음가를 말하는 것인지부터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국어사나 음운론 분야에서는 현대 이론에 근거한 음가 추정이 나름대로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국어사나 음운론에서 추구하는 음운체계 등은 본래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체계나 표기법에 관한 논의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문자와 표기는 관점(이론)에 따라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을 지닌 실체이다. 따라서 이들은 본래의 모습대로 확인되고 기술되어야 한다. 예컨대, 훈민정음에는 初聲字와 中聲字가 존재하는 것이지 子音字와 母音字가 있는 것으로 기술될 수는 없는 것이다.

(4)의 예들에 대한 현대적인 관점의 음가 추정은 그다지 어려워보이지 않는다. 즉 ‘깊-’이나 ‘믿는’으로 표기된 어사의 당시 발음은 현대와 마찬가지로 [깁]과 [민는]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8)</sup> 그러나 음가를 그렇게 추정한다고 해서 이들을 바로 예외적인 표기로 분류할 수는 없다. 표기와

7) 된소리 표기를 단일문자로 하지 않고 병서의 방법을 택했다는 점 자체가 당시의 판단 내용이 현대의 그것과 달랐음을 말해준다.

8) 15세기 당시에도 비음동화 현상이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의에서 근거가 제시된 바 있으므로 자세한 논증은 생략한다.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현대 학자가 현대 이론에 근거하여 판단한 음가가 아니라, 당시의 표기자가 인식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15세기 당시의 표기자가 음가를 [깁]과 [민는]으로 인식하고도 ‘깊’과 ‘민는’으로 적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외적인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음가와 표기의 불일치가 의도적인 것이므로 ‘왜 그랬을까’ 하는 물음도 당연히 성립된다. 그러나 만약 표기자가 음가 자체를 [깁]과 [민는]으로 인식했다면, 사정은 전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음가 인식의 옳고 그름이 문제는 될지언정, 표기법 차원에서는 논의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현대의 글에 나타나는 단순한 오기처럼, 의도적으로 표기 원리를 무시하거나 달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결국 당시의 표기자가 이들의 음가를 어떻게 인식했느냐 하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을 일단 정리하면, 아직은 (4)와 같은 예들을 예외적인 표기로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의 표기 원리를 파악하려면, 먼저 당시의 표기자가 음가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 그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는 음가는 표기와 조금 다른 것이다. 그러나 15세기의 표기와 현대적 관점의 음가는 서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다.

## 5.

표기법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音價와 마찬가지로 ‘表記原理’의 개념도 좀더 분명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15세기의 표기와 현대 맞춤법은 표기 원리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기술해왔다. 그러나 졸고(1995) 등에서 여러 차례 이미 지적했듯이, 양자의 차이는 엄밀히 말해 表記原理의 차이가 아니라 表記對象의 차이이다. ‘어법에 맞게’ 등

의 애매한 표현을 버리고 바탕 이론인 주시경의 理論으로 기술하면, 현대 맞춤법은 ‘本音’을 적는 표기이고, 15세기 이래의 전통적인 표기는 ‘臨時의 音’을 적는 것이다. 분명히 ‘어떻게 적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적느냐’가 다를 뿐이다.

어쨌든, 현대 맞춤법은 15세기 이래의 표기를 크게 혁신한 것이다. 그리고 그 혁신은 理論的이고 意圖的이며 全面的인 것이었다. 어쩌다 보니 표기 방법의 일부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표기 원리의 개념 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즉 표기 원리는 ‘이론적’이고 ‘의도적’이며 표기에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대 맞춤법의 특징인 分綴과 본음 표기는 사실 현대 맞춤법의 제정 이전 즉 근대의 문헌에서도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근대의 문헌 자료에 나타난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고 비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원리의 혁신이나 변화로는 보지 않는다.

(4)의 예는 근대 이전 즉 이미 15세기부터 현대 맞춤법과 비슷한 표기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은 근대자료의 경우와는 조금 달랐다. 즉 15세기의 경우에는 이들 표기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현대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분철과 본음 표기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15세기의 표기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先入見으로 작용하여 작업 과정이나 결론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5세기의 일부 문헌에서 확인되는 分綴과 본음 표기는 部分的인 것이지 전면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이들 예가 주로 나타나는 「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도 분철과 본음 표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sup>9)</sup> 예컨대, ‘긔 도코’(龍飛御天歌)에서 보듯이 ‘긔’은 현

9) 분철 표기는 「월인천강지곡」에만 나타나고, 그것도 體言은 末音이 ‘ㄹㄴㄹ’일 때 그리고 用言은 ‘ㄴ, ㄹ’에 한해 나타났다(이기문, 1992 참조). 분철 표기가 이렇게 한정된 조건에만 나타난 것은 그것이 표기원리에 따른 결과가 아님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어 화자에게 음절 단위(경계)의 인식은 익숙한 것이지만, 모든 경우가 다 쉬운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어깨]의 경우는 [역개]나 [역꺾] 등과 거의 변

대와 유사한 표기이지만 '도코'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부의 예외적인 표기가 理論的이고 意圖的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假定을 세우기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먹으니'와 '머그니' 그리고 '높고'와 '눅고' 같은 상이한 표기는 반드시 표기 원리(대상)의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현대 맞춤법의 성립 과정을 통해 이 점과 관련한 중요한 實例를 확인할 수 있다. 주시경이, 周時經은 본음 이론을 수립하여 현대 맞춤법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 분이다. 예를 들어, '높다'의 경우 본음은 [높]이고 [눅]은 입시의 음인데, 적을 때는 본음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 '本音 理論'이다. 주시경은 이 표기 이론을 자신의 저술에 그대로 적용한 바 있는데, 주목되는 한 가지 사실은 「국어문법」(1910)까지 '높고'로 적던 것을 「말의소리」(1914)에서는 '눅고'로 바꾸었다는 점이다.

「말의 소리」에서 '높고'가 '눅고'로 표기가 바뀐 것은 本音 表記라는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본음 표기의 원칙은 그대로인데, 본음에 대한 판단 내용이 달라진 것이다. 즉 처음에는 본음을 '높'으로 보았는데, 나중에는 '높'과 '눅' 둘 다 본음으로 보았던 것이다. 어쨌든, 본음을 둘로 본 판단은 착오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시경의 제자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현대 맞춤법에서도 「말의 소리」가 아니라 「국어문법」의 본음에 대한 판단을 따르고 있다.

우리는 위에 언급한 주시경의 예를 통해, 평범하지만 음미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상이한 표기는 표기 원리의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뛰어난 학자의 판단도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점 즉 판단 착오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 맞춤법이 '머그니'로 적지 않고 '먹으니'로 적는 것도 본음 표기

---

별되지 않으며, 동사 '안아서'의 발음도 보통은 [아나서]이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하면 [안아서]도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월인천강지곡」의 분철 표기는 음절 경계의 인식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시행착오일 가능성도 있다.

원칙 하나만으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먹으니’와 같은 표기에는 어간을 ‘먹-’으로 보는 중요한 형태론적 결론이 전제(포함)되어 있다. 만약, 어간을 ‘먹-’이 아니라 ‘머그-’로 보게 되면, 표기법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표기는 ‘머그니’로 바뀌어야 된다.<sup>10)</sup> 이처럼 동일한 표기라도 표기 원리는 다를 수 있고, 표기 원리는 동일하지만 음가나 본음 등의 판단 내용에 따라 표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 내용은, 표기의 차이가 곧 표기 원리의 차이는 아니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15세기의 경우처럼 음가대로 적는 표기에서는 음가에 대한 판단 내용에 따라 표기가 달라질 수 있고, 현대 맞춤법처럼 어간과 어미를 구분해 적는 표기에서는 형태론적인 판단에 따라 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기실 아주 평범한 것이지만 그동안의 표기법 논의에서 간과된 측면이 없지 않다.

## 6.

이제, 15세기에 과연 소리대로 적는 방법 말고 또하나의 표기 원리가 존재했었는가 혹은 그런 가정이 꼭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특정한 표기 원리의 존재 여부를 논하는 경우에는 논제의 성격상, 존재를 긍정하는 쪽에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즉 왜 별도의 표기 원리가 등장(필요)했으며, 그 원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이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표기 원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적극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다. 가능한 것은 존재를 인정하는 논거를 비판하고 다른 설명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다.

15세기에 두 가지의 표기법이 존재했었다는 결론은 대략 다음과 같은

---

10) 현대 맞춤법이 제정될 당시 박승빈 등은 어간을 ‘머그-’로 보고 ‘머그니’와 같은 표기를 주장하였다.

내용의 판단이 종합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5) ㄱ. 15세기의 표기 원리는 음가대로 적는 것이었다(解例의 규정)
- 나. 일부 문헌을 중심으로 음가와 일치하지 않는 표기가 보인다
- 다. 예외적으로 보이는 표기는 현대 맞춤법에 의한 표기와 유사하다.
- 르. 현대 맞춤법과 유사한 표기는 정음 창제 직후 나온 두 문헌(「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에서 주로 나타난다
- ㅁ. 두 문헌의 표기는 世宗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의 (5)와 같은 내용들을 근거로 해 도출된 최종 결론은 대략 아래 (6)과 같은 것이다.

- (6) 세종은 두 가지 표기법을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현대맞춤법과 같은 표기를 옳다고 믿었다. 「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에는 그러한 세종의 의지가 반영되었으나 「석보상절」 등 다른 문헌에는 소리대로 적는 실용적인 표기가 채택되었다.<sup>11)</sup>

(6)과 같은 결론은 (5)에 든 내용 외에도 「月印千江之曲」에 행해진 校正 등 자료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통해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경청해야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6)과 같은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보이는 표기에 대한 모든 의문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6)과 같은 결론에서 새로운 의문과 과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 거의 세종 혼자 힘으로 창제된 훈민정음의 운용 방법과 관련하여, 세종과 다른 누구의 의견이 대립되고, 끝내는 세종의 의견이 최종 결론으로 채택되지 않는 상황을 과연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그런 의문 중의 하나일 것이다.<sup>12)</sup>

11) 이기문(1992) 참조.

12) 훈민정음 창제와 뒤이은 한자음 개신 사업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종의 학문적 수준은 신하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추진력과 열의 또한 대단하였다. 이런 점에서 표기법에 대해서만 세종

기록 등의 가시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의 판단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새 문자가 만들어진 후 처음 나온 문헌은 「龍飛御天歌」와 「月印千江之曲」 그리고 「釋譜詳節」이었다. 그런데 이 세 문헌은 주지하듯이 표기면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여준다. 종성 표기와 분철 뿐만 아니라 한자어의 표기 방식도 제각기 다르다.<sup>13)</sup> 당시의 상황을 상식적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고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세 문헌의 표기는, 한 마디로 말해, 표기 규범이 미처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새 문자로 처음 표기하는 것이니만큼 여러 가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을 것이며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세 문헌의 표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訓民正音」(解例)에 표기 규범(八聲磬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八字可足用’ 등의 규정도 처음부터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런 결론이나 규정 역시 세 문헌의 표기와 같은 시험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얻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sup>14)</sup>

위와 같은 판단은, 예외적으로 보이는 표기들을 의도적인 것으로 보기 이전에 시행 착오에 의한 우연의 결과는 혹시 아닌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표기를 처음 하는 마당에 표기 원리에 대한 고민이나 모색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본적인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즉 소리를 적기 위해 표음문자를 만든 이상

---

이 자신의 의지를 꺾었으리는 가정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13) 「龍飛御天歌」는 한자어에 대해 한자 표기만 하고 정음으로 주음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두 문헌은 正音과 漢字를 병기하였다. 그러나 병기 방식은 서로 달랐다. 「월인천강지곡」은 정음 표기를 앞에 크게 했으나 석보상절에서는 그 반대로 뒤에 작게 표기하였다.

14) 현대 맞춤법도 여러 가지 시행 착오와 논란 과정을 거쳐 성립된 것이다. 굳이 구한말까지 소급하지 않고 주시경의 저술만 보더라도 「대한국어문법」(1906)과 「국어문법」(1910) 그리고 「말의소리」(1914)의 표기가 조금씩 달랐다. 그러나 본음을 적는다는 표기의 기본 원리는 같은 것이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가대로 적는 것이 일차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15)</sup>

소리대로 적는 원칙이 확정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표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다. 새 문자도 아직 익숙하지 않았을 터이고, 中和 등 음운현상이 발생하는 환경의 음가 판단도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15세기의 음가 판단이 완벽한 것이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당시에 음가 판단에 어느 정도의 혼동이 있었으리라는 추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표기 과정의 음가 혼동은 당연히 예외적인 표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15세기 당시에 ‘꺄’과 ‘꺄’이라는 두 가지 표기가 존재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금 더 나아가 세종이나 당시의 신하들이 두 가지 표기를 놓고 어느쪽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고 의견이 서로 달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표기 원리의 문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앞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럼, 相異한 표기는 표기 원리의 차이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음가대로 적는 표기에서는 음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 표기 또한 당연히 달라진다. 즉 ‘꺄’과 같은 표기는 본음 표기가 아니라도 종성의 음가를 그렇게 인식하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예외적인 표기들이 음가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음운현상이 나타나는 조건을 통해 그 현상의 성격(본질)을 짐작하듯이, 예

15) 주시경이 현대 맞춤법의 원리를 개발했듯이, 15세기의 세종도 현대의 맞춤법과 같은 표기 방법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우리도 그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일부 문헌의 표기에 실제로 적용되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이다.

16) 중화현상이 발생하는 終聲의 음가를 제대로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 표기에 나타나는 혼란이 바로 그 증거이다. 스과 ㄷ이 중화된 이후에 나타난 엄청난 표기 혼란 등 그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꺄’의 종성 음가를 ‘ㅅ’이 아닌 ‘ㅈ’으로 혼동하기 쉬운 것은 ‘고지’ 등의 활용형에서 종성의 음가를 유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적인 표기가 나타나는 조건을 통해 그 표기의 성격을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보여준 세종의 음 분석이나 인식 능력은 아주 뛰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세종의 판단은 무엇이든 처음부터 완벽한 것이었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 주지하듯이, 세종은 국어의 음운체계에 동화된 당시의 漢字음을 잘못된(訛傳) 것으로 보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역사는 한자음에 관한 세종의 판단은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고 판정하고 있다. 현실음도 아니고 중국음도 아닌 한자음을 再構하여 그대로 바꿔보려고 한 세종의 音價觀은 어찌보면 아주 특이한 것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어쨌든 세종이나 주시경의 경우도 판단 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완벽을 전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다. 誤判은 무식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생각해도 생길 수 있다.

결론적으로, 15세기에 현대의 맞춤법과 같은 표기원리가 일부 문헌에 의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단정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그럴 가능성이 확인되었을 뿐, 그래야 할 이유와 그랬다는 증거는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찾아본 것은 음가 혼동의 가능성이었다.

## 7.

현대의 국어학은, 자생적인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歐美 理論을 수용하여 방법론적으로 그것에 의존하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다시 말해, 구미의 언어학 이론을 도입하고 그 이론에 기초하여 국어 자료들을 분석하거나 해석해 온 것이 그동안의 주된 작업이었다. 文字와 表記法 분야 역시 그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논저에 초성 문자는 子音(닿소리) 문자로, 그리고 15세기 표기법의 원리는 ‘음소적 원리’

라고 기술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작업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결코 최선이 아니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글과 한글 표기법 논의까지 구미 이론에 의존하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심히 우려까지 하게 되는 것은 단지 구미이론이 外來理論이라서가 아니다. 理論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自生性 여부가 아니라 適切性의 여부이다. 여러 차례 이미 지적했듯이, 音素와 子, 母音의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구미 이론은 한글과 한글표기법의 특성을 제대로 분석, 기술할 수가 없다. 한글은 ‘音節의 三分’ 이론에 기초해 탄생한 문자이기 때문이다. 한글 표기법 역시 핵심은 ‘音節의 三分’ 이론이다. 따라서 한글과 한글표기법은 ‘音節의 三分’ 理論을 제대로 알고 그 이론에 기초해야만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

문자 표기론의 경우에는 구미이론에의 의존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즉 代案 不在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다. 한글과 한글표기법은 자체적으로 이미 필요한 理論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과 한글표기법에 으레 따라다니는 ‘과학적’이라는 수식어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문자 표기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앞선 선진국임을 의미한다. 즉 이미 오래 전에 문자와 표기에 관한 理論을 수립해서 그것을 實用化까지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글과 한글맞춤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곧 거기에 내재된 이론을 明示化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문자 표기에 관한 일반 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일례로, 구미의 문자 이론에서는 모든 문자를 단어문자와 음절문자 그리고 음소문자로 분류해왔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글은 고작해야 음소문자에 속하게 된다. 실제로, 오랫동안 그런 인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그런 인식은 최선의 것이 아니었다.

한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것이 기존 이론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존재라는 점이 제대로 인식될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의 결과는 ‘자질문자’와 같은 새로운 개념(이론)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모든 문자는 기존의 문자에서 派生되었다는 통념을 깨트린 것도 바로 한글이다. 이처럼 한글의 존재와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일반 문자 이론의 발전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의 책임은 아주 막중하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하나 더 붙이자면, 자질문자라는 새로운 用語는 현대의 학자가 命名했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은 한글 창제시에 이미 수립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한글 창제자가 개발하여 한글에 반영까지 시켜놓은 것을 후대의 학자가 발견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다. 어쨌든, 이름이 붙기 전에는 잘 몰랐던 한글의 특징을 이름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한글과 한글표기법에 올바른 이해와 체계적인 理論의 樹立이란 기본적으로 그런 성격의 작업이다. 즉 무엇을 새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어 잘 모르는 것을 조사하고 찾아내, 알기쉽게 이름을 붙이는 작업인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창석(1992), 15세기 음운 이론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_\_\_\_\_(1995), 한글과 한글 표기법 이론의 체계화에 대하여, 국어학 25.  
\_\_\_\_\_(2000), 글자 이름 '한글'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17집.  
송철의(1987), 15세기 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 16.  
이기문(1963),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문화연구총서 18, 한국연구원.  
\_\_\_\_\_(1972),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_\_\_\_\_(1983), 국어 표기법의 변천과 원리, 한국 어문의 제 문제, 일지사.  
\_\_\_\_\_(1992), 훈민정음 친제론, 한국문화 13.  
이익섭(1992), 國語 表記法 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주시경(1906), 말의소리.  
\_\_\_\_\_(1910), 국어문법.  
\_\_\_\_\_(1914), 대한국어문법.